

중국 어선 몰려온다... 서남해 초긴장

금어기 해제로 불법조업 극성 우려

목포·여수·완도해경 등 단속 대책 고심

■. 목포선적 덕양호(35t급 유자망) 선주 이지배(57)씨는 최근 중국 유자망 어선들에 대한 조업이 허가되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그물을 쳐놓기라도 하면, 보란 듯이 끌고 가버리는가 하면, 떼지어 몰려들면서 위협하는 중국 어선들의 '난폭' 행위를 감수해야 한다는 걱정 때문이다. 참조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9~11월)가 다가오는데도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새벽 4시에 나가 그물을 쫓 펼쳐 놔다가 오전 10시에 거두는데 중국 어선들이 이 일대에서 조업을 하며 수시로 그물을 끌고 가는 등 뺨방을 놓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 유자망 어선의 금어기(禁漁期)가 지난 1일부터 해제되면서 참조기 황금어장인 흥도, 흑산도를 둘러싼 서해바다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호시탐탐 노리는 무허가 중국 어선의 침범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조업에 나서는 어민은 물론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해야 할 해경도 바짝 긴장 상태다.

2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등에 따르면 중국 유자망 어선에 대한 금어기(6월 1일 낮 12시~8월 1일 낮 12시)가 1일 정오를 기해 해제됐다. 이로써 사전에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 1600척 가운데 유자망 673척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한·중 어업협약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이 우리 측 수역에서 올 연말까지 허가받은 어획량은 총 6만t. 이 가운데 조류에 따라 그물을 흘려보낸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 거둬들이는 유자망 어선이 허가 받은 어획량은 7672t이며, 이밖에 타망류(3만9079t, 상타망 3만8496t·단타망 583t)·위망(9108t)·우조(4141t) 등이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 유자망 어선 조업 재개와 관련, 지난달 목포·완도해경 안전서 등 4곳과 '해양경비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5일 목포해경을 시작으로 21일(완도해경), 27일(여수해경) 등과 불법 조업 단속 대형 합동과 중형 경비정을 한 팀으로 이루는 기동 전단을 구성, 우리측 황금어장 사수를 위한 경비 태세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중국 유자망 어선들의 조업이 재개되면서 어민들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다. 지금껏 흑산도, 흥도 인근 해역 등에서 조업을

하다가 그물 훼손 등 중국 어선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목포지역 한 어민은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 단속에만 전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노리고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적지 않다"면서 "올해도 중국 어선들의 피해를 입지 않고 조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011년 중국 어선에 물리는 벌금(담보금)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불법조업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로 목포해경에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은 ▲2011년 135척(징수 담보금 37억2200만원) ▲2012년 140척(62억650만원) ▲2013년 152척(102억3850만원) ▲2014년 94척(51억7950만원)으로 꾸준했다. 올 들어서도 55척의 불법 중국어선이 적발돼 담보금 16억9900만원을 물렸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목포시 영성한 조례 탓에...

항로 개설 보조금 3억 날려

운항 중단 해운사 상대

지원금 반환 소송 패소

목포시가 목포항을 이용해 중국·일본을 오가는 국제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했다가 운항을 중단한 해운사에 지원했던 보조금 3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시는 지원금을 받고 한 달여만에 운항을 중단한 해운사에 대한 목포시의 지원금 반환 명령은 조례가 위임하는 한계를 벗어난 '시행 규칙'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목포시가 항로 개설 당시만 해도 "목포항만과 함께 2년간 포드세일을 펼친 결과"라며 대대적 홍보를 펼친 것을 고려하면 목포시가 조례와 시행 규칙을 꼼꼼하게 정비하고 운영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희)는 N해운사가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N해운사는 지난 2013년 3월 목포시 등과 '정기 컨테이너 항로개설 협약'을 체결하고

1년 간 50여차례에 걸쳐 목포항을 기항, 중국·일본 항로를 운항해오다 지난해 3월 '목포항 컨테이너화물유지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금 3억원을 목포시로부터 지원받은 뒤 한 달여만에 운항을 중단했다.

목포시는 이후 관련 조례 시행 규칙의 지원금 반환 사례 중 '자금지원금을 받은 뒤 시장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했을 때'에 해당된다며 반환 명령을 했고 N해운사는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목포시의 지원금 반환 명령은 '목포항 컨테이너화물유지 지원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것이지만 해당 규칙은 그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라며 "조례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 조례(8조)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 내용은 조례에 언급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의 문언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폭염 안녕~” 장흥 물축제

2일 '2015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리고 있는 장흥군 장흥읍 탐진강 수변공원에서 1000여명의 관광객들이 물싸움 놀이로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축제는 장흥읍 탐진강 수변공원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오는 6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비리 드러나... 건설사 임원 11명 기소

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과정에서 건설업체끼리 미리 낙찰업체를 정하고, 대신 낙찰업체가 탈락 업체들에게 일정 대가를 제공키로 약속한 담합 비리가 드러났다.

낙찰된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업체에 수백억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하청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립산업·포스코건설·남광도건·경남기업·삼한기업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2

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립산업은 다른 4개 업체를 설득해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을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3-2공구는 전북 익산시 모현·평화동 등을 관통하는 2.9km 구간으로

예산 공사비는 2698억원이었다.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된 입찰에서 대립산업은 예정가의 82.7%인 2233억원을 입찰가로 써내기로 하고, 다른 업체에는 84~86%(2290억~2340억원)을 적어내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 경쟁입찰 평균 낙찰가는 예정가의 70%선으로 알려졌다. 낙찰에 성공한 대립은 들러리 선 4개 업체에 약속대로 400억~600억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나눠줬다. /연합뉴스

배달 오토바이 인도 주행 땀 업소 대표도 범칙금

경찰청 특별단속 계획 확정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된다.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빌린 돈 갚으라는 동거녀 손찌꺼한 20대 경찰서행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동거녀에게 손찌꺼한 20대가 경찰서행.

○...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문모(29)씨는 같은 날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자신이 사는 S원룸에서 동거녀 김모(여·26)씨 뺨을 때려 입술을

찢어지게 했다는 것. ○...경찰 조사에서 동거녀 김씨는 "(문씨와) 10개월 전부터 같이 살게 됐는데, 빌린 돈 3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그가 원룸에 들어온 문씨는 모두 자기 것이라며 화를 내면서 때렸다"고 설명.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신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찰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